*영어어문교육, 15*권 **4**호 **2009**년 겨울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에 따른 영어 독해전략 연구

모 슬 기*
(총신대학교)
김 영 숙**
(총신대학교)

Mo, Seul-ki & Kim, Youngsook. (2009). A study on the English reading strategies of Korean secondary EFL learners by their personality typ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291-3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glish reading strategies of Korean secondary EFL learners by their personality type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112 middle school students and 100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instrument used for personality measurement was the MBTI test. A reading strategy questionnaire was used to see how frequently each reading strategy was used while students read passages in English.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d two-way ANOVA to see the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terms of personality types.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ategies used by the two groups of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used more reading strategie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It was also found that the students exhibited some differences in reading strategy use depending on their personality types, especially between the N(Intuition) and S(Sensing) types. For example, students with N(Intuition) types used more vocabulary-comprehension, guessing, and metacogntive strategies than S(Sensing) types.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classroom English teacher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personality types/English reading strategies, 성격 유형/영어 독해전략]

Ⅰ. 서론

최근 영어 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수법에 대한 연구보다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음을 알

* 제1저자 ** 교신저자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식 전달에만 치우친 교사 중심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의 주체를 학습자로 규정한 인지 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특성 중 학습자의 성격 유형이 영어성취도나 영어 학습전략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이다(Busch, 1982; Carrell, Prince, & Astika, 1996; Dreyer & Oxford, 1996; Ehrman & Oxford, 1989, 1990; Moody, 1988; Wakamoto, 2000). 이러한 연구에서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와 같은 성격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성격 유형에 따른 외국어 학습자들의 영어성취도나 영어 학습전략과의 상관관계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외국어 학습자의 성격 변인과 연관하여 쓰기 과정과 쓰기 스타일 전환, 학습전략 선호도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김종철, 2006; 문영인, 2001; 민승기, 2000; 이성원과 이은지, 2004).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연관된 일반적인 언어학습 전략이나 성취도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실상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언어 영역이 독해임에도 불구하고 독해와 성격 유형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에 따라 영어 학습전략이나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실제 독해 능력에 학습자의 성격 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학습자들이 매일 증가하는 엄청난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읽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영문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독해전략의 계발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이다(송석요, 2004).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과 영어 독해전략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성격 유형에 따라 독해전략의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 분포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2)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독해전략에는 차이가 있는가?
3)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과 학습 집단 간의 차이는 영어 독해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성격 유형과 외국어 학습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으로 동기(motivation), 불안(anxiety), 감정이입(empathy), 자존감(self-esteem) 등이 많은 연구자들 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학습자의 감정이나 정의적인 변인들을 많이 들 수 있는데, 그 중 외향성(extro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이 외국어 학습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Torkelson, 1995; Wakamoto, 2000), 특히 MBTI 성격 유형검사와 외국어 성취도간의 관계(예를 들면 Carrell & Monroe, 1995)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MBTI 성격 유형검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 중 하나로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조직체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는 Jung(1923)의 심리학적 유형론(type theory)을 근거로 하여 Briggs 와 Myers 가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지표이다(Myers, 1962).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번역과정 및 한국판 표준과정을 거쳐서 1991 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김정택과 심혜숙, 1991),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김정신, 이행숙과 정민자, 2001; 지은림, 1998).

MBTI 는 크게 네 가지의 분리된 선호경향(preferences)으로 구성되는데, 이 선호경향이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경향을 말한다. 외향·내향(Extroversion vs. Introversion)의 범주는 개인의 관심과 에너지의 지향성(orientation)을 반영하며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E)과 내향형(I)으로 구분한다. 감각·직관(Sensing vs. Intuition)의 범주는 우리 주변 세계를 감지하고 수용하는 양식과 관련이 있다. 사고·감정(Thinking vs. Feeling)의 범주는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과 기억 속에 현실을 저장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판단·인지(Judging vs. Perceiving)의 범주는 외부 세계로 향한 자신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이 네 가지 이분척도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네 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16 가지의 성격 유형(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의 성격 유형은 교실에서 교사가 개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Lawrence(1984)는 강조했다. 즉 외향성(E)은 집단학습에 뛰어날 것이고, 내향성(I)은 개별 학습을 선호할 것이며, 감성·판단(SJ)형에 속하는 학습자는 “체계적인 구조를 강력히 필요로 하는 선형 학습자(linear learners)들”(p. 52)이라는 것이다. 또한 직관·사고(NJ)형에 속하는 학습자는 필답고사에 능숙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격 유형은 영어 학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외국의 많은 연구들이 MBTI 성격 유형과 외국어 학습간의 관계를 고찰해왔다(Carrell, Prince, & Astika, 1996; Ehrman, 1990; Ehrman & Oxford, 1989, 1990; Moody, 1988; Wakamoto, 2000).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Ehrman 과 Oxford(1990)를 들 수 있는데, 79 명의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MBTI 성격 유형에 따라 학습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의 경우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을 꾸준히 사용했으며, 반면 내향성의 경우 사회적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면대면 상호작용에 필요한 구두 의사소통능력을 계발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다(Dewaele & Furnham, 1998).

선행 연구의 경우, 직관형(N)이 언어 적성이 높으며 언어 능력 또한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영어를 제 2 언어로 학습하는 환경(ESL)에서의 연구들이었다(Ehrman, 1993; Ehrman & Oxford, 1989; Moody, 1988).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프랑스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김종철의 연구(2006)에서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직관형 학생들이 감각형에 비해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격과 영어 능숙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외향성(E)과 내향성(I) 그리고 감각형(S)과 직관형(N) 선호지표가 영어과목 선호도 그리고 능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주, 2003; E. Lee, 2003). 그러나 Brown(2007)이 지적하듯, 어느 특정 성격 유형이 외국어 학습의 성공여부를 예측한다기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성격 유형의 장점과 단점(표 1 참고)을 파악하여 장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표 1
Myers-Briggs 성격 유형의 유용한 점과 불리한 점(Brown, 2007, p. 178)

각각의 성향과 관련된 주요 유용한 점	
외향성(E: Extroversion)	기꺼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험을 시도
내향성(I: Introversion)	정신 집중,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함
감각형(S: Sensing)	열심히 체계적으로 일하며,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하게 관찰함.
직관형(N: Intuition)	문맥에서 유추와 추측을 함. 구조화, 개념화, 모델화를 시도함.
사고형(T: Thinking)	분석, 자기 수련, 도구적 동기
감정형(F: Feeling)	통합적 동기, 교사와의 유대, 바람직한 관계는 긍정적인 자아존중을 갖게 함.
판단형(J: Judging)	체계적으로 일하며 무엇이든 주어진 일을 해결하고자 함.
인식형(P: Perceiving)	변화와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잘 적응함.
각각의 성향과 관련된 주요 불리한 점	
외향성(E: Extroversion)	외부의 자극과 상호 작용에 주로 의존함.

내향성(I: Introversion)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종종 대화에서 모험을 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감각형(S: Sensing)	언어나 학습 과정에서 뚜렷한 학습 순서, 목적, 교과과정이나 체계 부족은 학습에 장애요소가 됨.
직관형(N: Intuition)	부정확성과 중요한 세부사항을 빠뜨림, 담화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것을 추구.
사고형(T: Thinking)	자아존중이 학습 성취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어 수행시 불안하며, 지나치게(언어와 과정)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감정형(F: Feeling)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대인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학습에 방해를 받음.
판단형(J: Judging)	엄격하며 또한 모호한 자극에 대해 참을성이 부족함.
인식형(P: Perceiving)	나태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진행함.

2. 성격 유형과 학습전략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성격 유형과 영어 학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중 특히 성격 유형에 따른 영어 학습전략의 선호도나 활용에 관한 연구가 주목 받아왔다. 여기서 영어 학습전략이란 영어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이나 과제 등의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능동적인 방법들을 말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학습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영어 능숙도나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Chin, 2008; Lee, 2005). 영어 학습전략은 보통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 초인지적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그리고 사회정의적 전략(socio-affective strategies)으로 대별할 수 있다(O'Malley & Chamot, 1990). 그 외 기억전략(memory strategies), 보상 전략(compensatory strategies), 또 언어의 각 기능에 따라 듣기 전략, 읽기 전략, 쓰기 전략 등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전략과 연관하여 외향성 학습자들은 정의적 전략이나 사회적 전략을 더 많이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는 반면, 내향성 학습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수진, 2003). 이성원과 이은지(200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과 성별이 영어 학습전략 사용과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외향성과 내향성,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와 감정형은 학습전략 사용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판단형과 인식형에서는 학습전략 사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의 경우 인식형에 비해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판단형의 성격적 특징이 분명한 계획과 조직된 일을 좋아하고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할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향성 유형은 적극적 활동성이나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활동에 흥미를 갖는 성격적 특성 때문에 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대화 중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말해 달라고 한다’및 ‘친구들과 그룹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등에서 높은 평균수치를 보였다.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과 영어 독해전략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독해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Oxford(1990)가 분류를 시도하였고, 학습자의 독해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독해 전략과 읽기 능력간의 상관관계(Carrell, 1989; Cziko, 1980)나 읽기 수업에서 전략 훈련이나 독해전략 교수방안(Block & Pressley, 2002; Cohen, 1998; Pearson & Duke, 2002)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주 드물지만 학습자의 성격 유형이 읽기지문 이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흥미롭다. Singer 와 Etter-Lewis (1986)는 미국 대학생 200 명을 대상으로 성격 유형과 독해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사고와 감정(Thinking/Feeling) 유형에서 지문유형과 성격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학습자들의 성격 요인이 독해전략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 가운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유형과 영어 독해전략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의 중위권 J 여자 중학교 3 학년 세 학급 112 명과 인문계 H 여자고등학교 2 학년 세 학급 100 명을 대상으로 MBTI 성격 유형 검사 및 영어 독해전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MBTI 검사지

앞서 언급했듯이 MBTI 성격 유형 검사지는 1991 년부터 한국어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언어(영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미국 교포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다양한 문항 분석과 통계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것이다(김정택, 심혜숙과 제석봉, 1995). MBTI 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이미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 받았고, 영어교육 분야에서 성격 유형을 활용한 선행 연구(문영인, 2001; Carrell & Monroe, 1995; Jensen & DiTiberio, 1989; Lee, 2003)에서도 널리 쓰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성격측정 도구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BTI 한국어 판 검사지는 9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G 형으로 자가 채점 방식인 GA 형이다.

2) 영어 독해전략 설문지

설문지 문항 개발의 첫 단계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G 고등학교 2 학년 44 명의 학생들에게 짧은 글을 읽게 한 뒤 자신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했는지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학생들이 서술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독해전략에 관한 문장들을 수거하여 1 차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 차적으로 구성한 설문 문항의 내용을 선행 연구자(박영예, 1999)의 독해 분류표를 참고하여 5 개의 영역으로 나눈 후 적절히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문지(부록 참조)는 43 문항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0 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08 년 3 월부터 4 월초 사이에 수집되었다. MBTI 성격 검사지는 연구 대상 학생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자신의 성격을 진단 받도록 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학교에서 실시된 MBTI 검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므로 따로 성격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영어 독해전략 설문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연구자가 직접 교실을 방문하여 각 문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안내한 후 설문지에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에 따른 영어 독해전략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를 코딩 처리하여 윈도우 SPSS 프로그램(12.0 version)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의 성격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중·고등학생의 영어 독해전략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중학교 학습 집단과 고등학교 학습 집단 간에 MBTI 와 독해전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격 유형과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 간의 차이가 영어 독해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중·고등학생의 성격 유형 분포

먼저 MBTI 선호 지표별로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선호 지표별 비율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사고형(T)과 감정형(F)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습 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향성(E: n=135, 63.7%), 감각형(S: n=154, 73%), 사고형(T: n=121, 57.1%), 인식형(P: n=114, 53.8%)에 속하는 학생 비율이 내향성,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에 속하는 학생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격 유형의 분포는 이성원과 이은지(2004)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성원과 이은지(2004)는 한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과 성별이 영어 전략사용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한 남학생 94 명, 여학생 113 명의 성격유형을 조사한 결과 외향성,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에 속하는 학생비율이 내향성,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에 속하는 학생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각 성격유형별 남녀 학생비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여학생에 국한시켜 성별에 따른 성격 유형 분포가 서로 다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성격 유형별로 남녀간의 분포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선행연구(김정신 외 2 인, 2001; 이성원과 이은지, 2004)의 결과를 참고해볼 때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표 2
전체집단의 성격 유형 분포

	N.	E	I	S	N	T	F	J	P
중학생	112	69	43	81	30	71	41	54	58
		61.6%	38.4%	73.0%	27.0%	63.4%	36.6%	48.2%	51.8%
고등학생	100	66	34	73	27	50	50	44	56
		66.0%	34.0%	73.0%	27.0%	50.0%	50.0%	44.0%	56.0%
Total	212	135	77	154	57	121	91	98	114
		63.7%	36.3%	73.0%	27.0%	57.1%	42.9%	46.2%	53.8%

E:Extroversion I:Introversion S:Sensing N:Intuition T:Thinking F:Feeling J:Judging P:Perceiving

표 3 은 전체 연구 대상 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MBTI 분류에 따른 16 가지 성격 유형에 따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ESTJ 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13.7%) 성격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MBTI 심리

유형을 분석한 김정신 외 2 인(2001)의 연구 결과(ESTJ 가 20.5%로 가장 비율이 높음)와도 유사하다.

표 3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별 16 가지 성격 유형 분포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감정형(F)	사고형(T)
내향성(I)	판단형(J)		**ISTJ**	**ISFJ**	**INFJ**	**INTJ**
		중	N=12 10.7%	N=3 2.7%	N=0 0.0%	N=4 7.1%
		고	N=11 11.0%	N=5 5.0%	N=0 0.0%	N=2 2.0%
	인식형(P)		**ISTP**	**ISFP**	**INFP**	**INTP**
		중	N=8 7.1%	N=8 7.1%	N=4 3.6%	N=4 3.6%
		고	N=2 2.0%	N=7 7.0%	N=1 1.0%	N=5 5.0%
외향성(E)	인식형(P)		**ESTP**	**ESFP**	**ENFP**	**ENTP**
		중	N=13 11.6%	N=9 8.0%	N=5 4.5%	N=7 6.3%
		고	N=14 14.0%	N=14 14.0%	N=9 9.0%	N=4 4.0%
	판단형(J)		**ESTJ**	**ESFJ**	**ENFJ**	**ENTJ**
		중	N=20 17.9%	N=8 7.1%	N=4 3.6%	N=3 2.7%
		고	N=9 9.0%	N=11 11.0%	N=3 3.0%	N=3 3.0%

2. 중·고등학생의 영어 독해전략의 차이

영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독해전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해전략을 정보탐색 전략, 어휘이해 전략,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초인지 전략, 구조이해 전략 5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초설문을 통해 얻은 고등학생들의 영어 독해전략에 관한 서술 문장을 정리하여 독해전략의 각 영역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설문지 문항에 포함된 전략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 와 같다. 설문지의 각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알파계수의 평균이 .89 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4
독해전략 분류 및 설문지 문항 예시

상위분류	하위분류	문항번호	각 분류별 예시
정보탐색 전략	·제목과 삽화이용	1,2,6	삽화(그림)이나 사진을 먼저 본다.
	·사전찾기	26,27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본다.
	·배경지식활용	7,18,32	경험이나 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전지식에 비추어 의미를 추측한다.
어휘이해 전략	·핵심단어식별	15,16,17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다.
	·모르는 단어 구분하기	28,29,30	모르는 단어는 밑줄을 긋거나 따로 적어 둔다.
	· 단어의미추측	31,33,34	모르는 단어가 내용 이해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먼저 판단한다.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내용 추측하기	4,12,21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해 본다.
	·전체 흐름 기억하기	8,9,10	글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먼저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본다.
	·문단요약하기	20, 37	문단을 요약하면서 읽는다.
초인지 전략	·전략의 선택	13,14,40	소리내어 읽거나 해석을 종이에 적으면서 독해한다.
	·읽기속도 인식	5,36,39	시간을 정해놓고 독해한다.
	·스스로 계속적 점검	24,38,41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될 때까지 읽는다.
구조이해 전략	·정독하기	19,22,25	훑어 읽지 않고 글 전체를 세부적 내용에 초점 두며 꼼꼼하게 읽는다.
	·문법적으로 문장성분분석	35,42,43	주어, 동사를 찾으면서 문장성분을 분석하면서 읽는다.
	·담화표지장치에 유의하여 읽기	11,23	But, therefore 등과 같은 접속사에 유의하면서 읽는다.

표 5 는 중·고등학교 학습자 전체의 독해전략 유형별 평균과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독해전략 사용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3.19 로 대부분의 항목들이 3.0 보다 높은 평균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학생들이 비교적 독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정보탐색 전략(M=3.47)이었고 구조이해 전략(M=2.98)을 가장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전략 사용의 차이가 유의한지 t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초인지 전략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전략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독해전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휘 전략과 구조이해 전략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훨씬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두 집단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수능 시험을 대비한 영어 어휘와 문법 구조 학습에 더 익숙해져 있고 교사들의 학습전략 지도나 연습을 통해 학습전략을 더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5
독해전략별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 t 검증

독해전략	집단	M	SD	t	p
정보탐색 전략 (M=3.47)	중학생	3.39	.550	2.046	.042
	고등학생	3.54	.551		
어휘이해 전략 (M=3.22)	중학생	3.05	.626	4.592	.000
	고등학생	3.42	.534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M=3.13)	중학생	3.06	.536	2.404	.017
	고등학생	3.21	.385		
초인지 전략 (M=3.13)	중학생	3.06	.754	1.592	.113
	고등학생	3.21	.511		
구조이해 전략 (M=2.98)	중학생	2.78	.786	4.366	.000
	고등학생	3.19	.521		
	Total Mean	3.19			

3. 중·고등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영어 독해전략의 차이

중·고등학교 각 집단별 성격 유형에 따라 영어 독해전략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각 성격 지표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외향성(E)과 내향성(I)에 따른 독해전략의 사용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E/I 에 따른 독해전략의 사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외향성(E)-내향성(I) 유형에 따른 독해전략 비교

독해전략	외향성			내향성		t	p
	집단	Mean	SD	Mean	SD		
정보탐색 전략	중	3.43	.535	3.34	.567	.838	.404
	고	3.56	.520	3.52	.508	.382	.703
어휘이해 전략	중	3.10	.678	2.97	.531	1.042	.300
	고	3.38	.487	3.49	.617	.958	.341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중	3.04	.830	3.09	.518	.511	.611
	고	3.22	.386	3.21	.390	.078	.938
초인지 전략	중	3.11	.779	2.98	.713	.898	.371
	고	3.25	.528	3.13	.474	1.104	.272
구조이해 전략	중	2.78	.830	2.78	.719	.035	.972
	고	3.22	.552	3.13	.459	.757	.451

아래 표 7 은 감각형(S)과 직관형(N)에 따른 독해전략의 사용을 비교한 것이다. 중학교 학습 집단내에서는 S/N 에 따른 독해전략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습 집단의 경우 $p<.05$ 수준에서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초인지 전략, 그리고 구조이해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학습 집단에서는 직관형(N)의 학생이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초인지 전략, 그리고 구조이해 전략을 더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표 7
감각형(S)-직관형(N) 유형에 따른 독해전략 비교

독해전략		감각형		직관형		t	p
	집단	Mean	SD	Mean	SD		
정보탐색 전략	중	3.35	.535	3.50	.587	1.284	.202
	고	3.52	.529	3.61	.474	.821	.414
어휘이해 전략	중	3.01	.608	3.16	.680	1.095	.276
	고	3.36	.527	3.58	.530	1.811	.073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중	3.06	.520	3.07	.585	.131	.896
	고	3.14	.356	3.41	.401	3.205	.002
초인지 전략	중	3.01	.751	3.18	.763	1.076	.284
	고	3.12	.496	3.43	.488	2.811	.006
구조이해 전략	중	2.75	.820	2.86	.7029	.650	.517
	고	3.12	.486	3.36	.584	2.056	.042

사고형(T)과 감정형(F)에 따른 독해전략의 차이를 보면, 중학교 학습 집단에서는 T/F 에 따른 독해전략의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집단의 경우 표 8 에서 보여주듯이, 어휘이해 전략이 $p<.05$ 수준에서 T/F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사고형(T)일수록 어휘이해 전략(예를 들어, 핵심단어식별하기, 모르는 단어 구분하기 읽기, 반복되는 단어 찾기 등)을 더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사고형(T)-감정형(F) 유형에 따른 독해전략 비교

독해전략		사고형		감정형		t	p
	집단	Mean	SD	Mean	SD		
정보탐색 전략	중	3.40	.584	3.39	.494	.057	.955
	고	3.63	.479	3.46	.538	1.712	.090
어휘이해 전략	중	3.05	.642	3.05	.605	.024	.981
	고	3.54	.502	3.30	.542	2.362	.020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중	3.04	.569	3.04	.480	.333	.740
	고	3.27	.390	3.16	.374	1.510	.134
초인지 전략	중	3.08	.743	3.03	.779	.301	.764
	고	3.20	.485	3.21	.540	.097	.923
구조이해 전략	중	2.81	.800	2.72	.768	.610	.543
	고	3.24	.499	3.14	.543	1.006	.317

표 9 는 판단형(J)과 인식형(P)에 따른 독해전략의 사용을 비교한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 모두 J/P 유형에 따라 독해전략의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집단 내에서만 초인지 전략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학습 집단의 경우 판단형(J)학습자가 초인지 전략(예를 들어, 읽기속도 인식하기, 전략 스스로 선택하기, 읽으면서 스스로 계속 점검하기 등)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9
판단형(J)-인식형(P) 유형에 따른 독해전략 비교

독해전략	판단형			인식형		t	p
	집단	Mean	SD	Mean	SD		
정보탐색 전략	중	3.47	.528	3.33	.515	1.331	.186
	고	3.49	.542	3.59	.491	.988	.326
어휘이해 전략	중	3.05	.673	3.05	.584	.037	.971
	고	3.43	.596	3.41	.485	.172	.864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중	3.13	.568	2.99	.500	1.418	.159
	고	3.21	.366	3.22	.403	.143	.886
초인지 전략	중	3.22	.667	2.91	.803	2.228	.028
	고	3.25	.520	3.17	.506	.740	.461
구조이해 전략	중	2.91	.772	2.66	.786	1.730	.086
	고	3.20	.459	3.18	.570	.240	.811

중·고등학교 각 집단내의 성격 유형에 따른 독해전략의 차이를 종합·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향성(E)과 내향성(I)을 제외한 감각형(S)과 직관형(N), 사고형(T)과 감정형(F), 그리고 판단형(J)과 인식형(P)에서 각 집단내에서 독해전략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학습 집단은 감각형(S)과 직관형(N), 사고형(T)과 감정형(F)에서 집단 내 독해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교 학습 집단은 판단형(J)과 인식형(P)에서만 집단 내 독해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집단의 경우 직관형(N)일수록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초인지 전략과 구조이해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며, 사고형(T)일수록 어휘이해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 유형 중 사고형(T)과 감정형(F), 판단형(J)과 인식형(P)은 전략사용에 있어서 가장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Wakamoto(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Wakamoto(2000)의 연구에서 사고형(T)은 초인지 전략과 분석을 공통적으로 사용했고, 감정형(F)은 이런 전략을 거부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형(T)이 어휘이해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적이고 원리나 분류를 선호하는 사고형(T)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 간 성격 유형의 차이와 영어 독해전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5 개 독해전략별로 각각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 집단과 성격 유형 두 가지 독립변인을 비교할 때, 초인지 전략을 제외하고 성격 유형보다는 학습 집단의 차이가 독해전략 사용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보탐색 전략, 어휘이해 전략,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그리고 구조이해 전략에서는 학습 집단의 차이와 성격 유형 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표 10
초인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과 성격 유형의 이원변량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집단(중/고)	.935	1	.935	2.209	.139
E/I	.763	1	.763	1.802	.181
집단 * E/I	.002	1	.002	.005	.946
집단	1.349	1	1.349	3.252	.073
S/N	2.452	1	2.452	5.911	.016
집단 * S/N	.201	1	.201	.485	.487
집단	1.124	1	1.124	2.632	.106
T/F	.015	1	.015	.036	.850
학년 * T/F	.038	1	.038	.089	.765
학년	1.049	1	1.049	2.537	.113
J/P	1.975	1	1.975	4.776	.030
학년 * J/P	.728	1	.728	1.760	.186

표 10 은 집단과 성격 유형이 독해전략 중 하나인 초인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초인지 전략의 경우 집단 간 차이보다 성격 유형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표 10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중 감각형(S)과 직관형(N)($F=2.452$, $df=1$, $p<.05$), 판단형(J)과 인식형(P) ($F=1.975$, $df=1$,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초인지 전략의 사용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과 성격 유형의 상호작용이 독해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이 둘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따라서 학습 집단별로, 성격 유형별로 각각 독해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과 영어 독해전략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 년 현재 중학교 3 학년 112 명, 고등학교 2 학년 100 명(모두 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MBTI 성격 유형 검사 및 독해전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로 첫째,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 분포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둘째,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독해전략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과 학습 집단 간의 차이는 영어 독해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들의 성격 유형 별로 살펴본 결과, MBTI 선호 지표별로 외향성,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E, S, T, P)에 속하는 학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선호 지표는 사고형(T)으로 나타났다. MBTI 분류에 따른 16 가지 성격 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 중 13.7%의 학생들이 ESTJ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학습자들의 성격 유형 분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어 독해전략의 유형을 크게 5 가지로 나누었는데, 중·고등학생들 모두 독해전략 사용에 있어서 평균 3.19 로 나타나 학생들이 비교적 독해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정보탐색 전략(M=3.47)이었고 구조이해 전략(M=2.98)을 가장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독해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독해전략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능 관련 영어 읽기지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연습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정보탐색 전략, 어휘이해 전략,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구조이해 전략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어휘이해 전략과 구조이해 전략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훨씬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두 집단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셋째, 성격 유형에 따른 영어 독해전략의 차이는 두 집단 모두 외향성(E)/내향성(I)을 제외한 성격 지표, 즉 감각형(S)/직관형(N), 사고형(T)/감정형(F) 그리고 판단형(J)/인식형(P)에서 독해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습 집단의 경우 판단형(J)일수록 더 빈번하게 초인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적이며 모든 일을 절차에 따라 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과업을 이루어 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판단유형의 성격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고등학교 학습 집단의 경우 직관형(N)일수록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과 구조이해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사고형(T)일수록 어휘이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직관형(N)과 사고형(T)의 성격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전략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중·고등학교 학습 집단과 성격 유형은 각각 영어 독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계분석 결과 양자간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 유형의 차이보다는 중학교 학습 집단인지, 고등학교 학습 집단인지에 따라 독해전략 사용에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향성과 내향성(E/I)은 두 학습 집단간, 그리고 집단 내에서 독해전략의 사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말하기 활동이나 면대면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향성/내향성 성격 유형의 차이와는 대조적인 결과라 하겠다 (Wakamoto, 2000). 반면 직관형(N), 사고형(T), 그리고 판단형(J)은 독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직관형(N)의 경우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초인지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고 사고형(T)의 경우는 어휘이해 전략을, 그리고 판단형(J)의 경우 초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재 2007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특성,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전략 사용이나 동기, 학습 스타일 그리고 정의적 요인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으로 성격 특성을 다룬 것도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교사들이 현장 수업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영어 독해전략 교수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표 1 에서 살펴본 바대로 성격의 유용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음을 고려해볼 때,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장점을 활용하되 독해 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이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가령, 본 연구 결과에서 직관형(N)일수록 어휘 이해전략, 추측 및 이해점검 전략, 그리고 초인지 전략 등의 다양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유형의 특성에 따르면, 직관형이 좋아하는 인지양식은 자신의 영감을 따라가고, 의미와 관련된 연상들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문맥을 통해 이해하고 세밀한 관찰보다는 통찰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직관형의 경우는 상상력과 통찰력에 의해 빠른 추측을 하려는 장점도 있지만 직관에 의해서만 글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나 세부사항 이해를 요구하는 글에서는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습자의 개별적인 성향에 따른 학습 유형을 잘 이해한 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독해전략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성격 유형에 따라 영어 독해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으로 여학생을 국한한 것은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제한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남녀 성별을 고루 포함한 성격 유형 분포를 바탕으로 독해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격 유형과 독해전략의 차이가 실제 독해능력 성취도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해전략 설문도구가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독해전략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여겨지며 차후에는

설문지뿐만 아니라 인터뷰 및 직접관찰법, 종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정신, 이행숙, 정민자. (2001). 중·고등학생들의 MBTI 심리유형 분석. *한국여성교양학회지, 7*(1), 103-126.

김정택, 심혜숙. (1991). *MBTI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1995). *MBTI 의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종철. (2006, 12 월). *한국 고교생의 성격 유형과 프랑스어 학습전략*.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문영인. (2001). 성격 유형이 쓰기 스타일 전환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6*(4), 293-310.

민승기. (2000). *성격이 성인 영어학습자의 쓰기 과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박영예. (1999). 대학생들의 독해전략에 관한 분석. *응용언어학, 15*(2), 137-158.

송석요. (2004). 영어 읽기 전략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영어영문학연구, 46*(1), 213-233.

오수진. (2003). *성격 유형에 따른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충북.

윤영주. (2003). *초등학생의 성격 유형과 영어 과목 선호도 및 수학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구.

이성원, 이은지. (2004). 한국 중학생들의 성격과 성별이 영어 전략 사용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9*(2), 269-292.

지은림. (1998). MBTI 성격 유형검사의 외향성-내향성 척도를 위한 차원성 검증 및 타당도 평가. *교육평가연구, 11*(2), 133-148.

Block, C. C., & Pressley, M. (Eds.). (2002). *Comprehension instruction: Research-based best practices*. New York: Guilford Press.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Busch, D. (1982). Introversion-extroversion and the EFL proficiency of Japanese students. *Language Learning, 32*(1), 109-132.

Carrell, P. (1989). Metacognitive awarenes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Modern Language Journal, 73*, 121-133.

Carrell, P., & Monroe, L. (1995). ESL composition and learning styles. In J. Reid (Ed.),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pp. 148-157). Boston, MA: Heinle & Heinle.

Carrell, P., Prince, S., & Astika, G. (1996). Personality types a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46*(1), 75-99.

Chin, C. (2008). Investigations on college EFL readers' awareness, preferences, and learning strate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3), 1-27.

Cohen, A. D.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New York: Longman.

Cziko, G. A. (1980). Language competence and reading strategies: A comparison of first and second language oral reading errors. *Language Learning*, *30*(1), 101-116.

Dewaele, J-M., & Furnham, A. (1998). *Extroversion: The unloved variable in applied linguistic research*. Unpublished manuscript.

Dreyer, C., & Oxford, R. (1996).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predictors of ESL proficiency among Afrikaans speakers in South Africa. In R. L. Oxford (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round the worl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61-74). Manoa,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Ehrman, M. (1990). The role of personality type in adult language learning: An ongoing investigation. In T. Parry & C. Stansfield (Eds.), *Language aptitude reconsidered* (pp. 126-178). New York: Prentice Hall Regents.

Ehrman, M. (1993, July). *The type differentiation indicator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Tenth Bienni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Type, Newport Beach, CA.

Ehrman, M., & Oxford, R. (1989). Effects of sex differences, career choice, and psychological type on adult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Modern Language Journal*, *73*(1), 1-13.

Ehrman, M., & Oxford, R. (1990). Adult language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in an intensive training setting. *Modern Language Journal*, *74*(4), 311-327.

Jensen, G. H., & DiTiberio, J. K. (1989). *Personality and the teaching of composition*. Norwood, NJ: Ablex.

Jung, C. (1923). *Psychological types*. New York: Harcourt Brace.

Lawrence, G. (1984). *People types and tiger stripes: A practical guide to learning styles*. Gainesville, FL: Center for Applications of Psychological Type.

Lee, E. (2003). *Effects of personality types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EFL profici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Lee, M. (2005).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integrative and instrumental orientations o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1), 37-55.

Moody, R. (1988). Personality preferences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72*(1), 389-401.

Myers, I. B. (1962).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Malley, M., & Chamot,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Boston, MA: Heinle & Heinle.

Pearson, P. D., & Duke, N. (2002). Comprehension instruction in the primary grades. In C. Block & M. Pressley (Eds.), *Comprehension instruction: Research-based best practices* (pp. 247-258). New York: Guilford Press.

Singer, M., & Etter-Lewis, G. (1986). *Personality type and college reading comprehension.*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Assistance Technical Repor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78 967).

Torkelson, K. (1995). Learning styles and ITA training. In J. Reid (Ed.),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pp. 134-147). Boston, MA: Heinle & Heinle.

Wakamoto, N. (2000). Language learning strategy and personality variables: Focusing on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8*, 71-81.

부 록

영어 독해전략에 관한 설문지

1. 자신의 MBTI 성격 유형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ISTJ ( )	②ISFJ ( )	③INFJ ( )	④INTJ ( )
⑤ISTP ( )	⑥ISFP ( )	⑦INFP ( )	⑧INTP ( )
⑨ESTP ( )	⑩ESFP ( )	⑪ENFP ( )	⑫ENTP ( )
⑬ESTJ ( )	⑭ESFJ ( )	⑮ENFJ ( )	⑯ENTJ ( )

2.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영어 독해를 할 때 _____.

		①	②	③	④	⑤
1	제목을 먼저 읽는다.					
2	삽화(그림)이나 사진을 먼저 본다.					

3	중요한 문장들을 구분해 낸다.					
4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해본다.					
5	대략적으로 훑어 읽는다.					
6	굵은 글씨를 집중적으로 본다.					
7	“ “ 속의 인용 문구를 본다.					
8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는다.					
9	뒷부분을 먼저 보고 앞부분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10	앞부분을 먼저 보고 뒷부분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11	but, so, therefore와 같은 접속사에 유의하면서 읽는다.					
12	예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해본다.					
13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면 소리 내서 읽어본다.					
14	해석을 종이에 적으면서 독해한다.					
15	자주 나오는 단어는 독해에 매우 중요한 단어로 생각한다.					
16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다.					
17	반복되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 놓는다.					
18	어떤 종류의 글인지 생각하면서 읽는다.					
19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의 앞부터 다시 읽는다.					
20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의 구성을 먼저 살핀 다음에 독해한다.					
21	아는 단어를 보면 내용을 대략 파악한다.					
22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며 읽는다.					
23	순서를 나타내는 first, second, next, finally 등과 같은 단어의 뒷문장을 주의 깊게 본다.					
24	독해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은 의미 이해를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읽는다.					
25	훑어 읽지 않고, 글 전체를 꼼꼼하게 읽는다.					
26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본다.					
27	모르는 단어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본다.					
28	모르는 단어는 밑줄을 긋고 넘어간다.					
29	모르는 단어만 찾아서 따로 적어 놓는다.					
30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지 않고 유추하면서 문맥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31	앞, 뒤의 단어를 통해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본다.					
32	독해를 할 때 경험이나 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전지식에 비추어 의미를 추측한다.					
33	추측했던 단어의 뜻이 문맥과 어울리는지 읽어가는 도중에 한번 확인한다.					
34	모르는 단어가 내용 이해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먼저 판단한다.					
35	문장에서의 단어의 역할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36	시간을 정해놓고 독해를 한다. (예: 독해하는 시간이 5분 이상 걸리지 않게 한다 등)					
37	문단을 요약하면서 읽는다.					
38	문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는다.					
39	독해를 하다가 이해가 안되고 어려워지면 속도를 달리해서 읽어본다.					
40	긴 문장을 끊어 읽는다.					
41	여러 번 읽으면서 독해 내용을 수정한다.					
42	주어, 동사를 찾으면서 읽는다.					
43	문법적인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는다(문법적으로 문장성분을 분석).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College

모슬기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156-763 서울 동작구 사당 3 동 산 31-3
Tel: 02-3479-0525
Email: violin-in@hanmail.net

김영숙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156-763 서울 동작구 사당 3 동 산 31-3
Tel: 02-3479-0354
Email: yskim@chongshin.ac.kr

Received in October, 2009
Reviewed in November,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09